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shington 98124

Ke-Hi Oh - Publisher
Sung-Hwi Pak - Editor
(206) 362-4500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8





영미정

한국 최고의 궁중요리사
드디어 영미정 주방에
초빙되었음.

대표 조 영

84년1월1일부터

일본식 요리 개시

○ 최신식 완전 자동냉면기계 설비

○ 대 연회장 완비

○ 넓은 주차장 시설

(씨애틀 최대 규모와 격조높은 나이트 클럽)

★로스엔젤레스에서 대인기를 모은

대형가수 문희진양 출연★

※ 가락외식 ※ 친목회식 ※ 귀한손님접대 ※ 축하연동
모임에 따라

10명에서 150명 400명 까지

한자리에 모실수 있습니다

YOUNG ME RESTAURANT
623-3112

220 4th Ave So Seattle, WA 98104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한인회보

목차 (CONTENTS)

- 4 권두언
- 5 역대 한인회장 회고 (한만섭 박사편)
- 7 참정권과 수혜권 (김현길 박사)
- 8 비오는날 밤에 (박찬주)
- 9 우리나라 꽃 (무궁화)
- 10 이창희선생 장학생 선발
- 11 장님 제 호박 따오기 (김동진 목사)
- 14 교포사회 소식및 동정
 - 광복절 기념식 업무
 - 재미장학생 선발결과
 - 한빛 문화협회 발기
 - 제 3회 5개도시대항 축구
 - 신호용씨 씨애틀 청소년 축구팀에 유니폼기증
- 15 Muscanto 장학생 선발요령
- 16 법률 세미나
- 17 태극기 해설
- 18 법률상식 (직장상해보험의 보상제도)
- 19 Youth Column (A UTOPIA WHERE LIFE IS SIMPLE)
- 20 지상강좌 - 명심보감 (근학편)
- 22 독자 설문란

씨애틀 지역 84년도 "한인주소록" 발간

고민어려분께 협조요망

전화번호 : (206) 362-4500

주소 : 2611 125th St. N. E.
Seattle, Wa. 98125

권 두 언

8월은 한국이 일제 36년의 식민지마에서 해방이되던 해의 달로서 의미를 붙이게 된다. 지금으로 보더라도 39년 전 이달 15일에 한국인은 오랫동안 자기의 책임 하에서 최선의 이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동원하고 활용하여 온다는 기회를 가져보게 되었었다. 이것이야말로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준 최선의 선물이고 특권으로서 이기회의 소용가 바로 피조물 생존의 의의로서 최선의 기쁨인 것이니 8월이 한국인에게 주는 기어의 내용으로 보든 것이 있겠다. 또한 이달이 가지는 한국인에게 대한 고분도 높은 바 라고 하겠다.

일제가 한국인을 인간과 국가의 문명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은 36년의 기간이 지난 1945년의 8월에는 많은 능력의 면에서 남에게 뒤떨어져 있었던 것을 쉽게 미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우리민족의 미래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성취하는 계발을 세우는 처참과 제를 두고서 문란을 일으켰던 여사는 한국인에게 중오한 연구의 대상이거니와 그 후 39년간 그 것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여사도 또한 못지않게 중오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한국인의 선천적인 우월함에서 그 원동력을 밖 이력함과 동시에 선조들이 쌓아놓은 전통과 문화의 우수성을 들어 이 발전을 밖 이력하는 시도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어쨌든 한국인이 그 선천적인 우수성을 가지고 있음도 있음으로써니와 역대 선조의 쌓고 닦아놓은 그 전통과 문화 기쁨이 우수함도 다 누끼게 되는 것이 확신했던 것이다. 남의 사를 벗어나 자기의 성격과 그 그의 실현을 자유로이 전개하여가는 기회에 이르렀을 때 이 한국인은 그 모를 끝은 시련에나마 보이었고 그 결과를 내어 놓게 되었다.

이같은 발전과 함께 이제 한국인은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또 이들을 오게되면서 한국인은 새로운 경험과 과제를 맡아 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당면한 문제인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이제는 남을 이해하고 남과의 관계에서 자신과 다른 이의 상호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마음 가짐과 기쁨을 익어가야지 않나 싶다. 이러한 과제는 다른 사람과 문명체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 하고 있다. 오히려 부러한 개성을 중본이 보이는 개개인의 민족이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여 서로가 각자의 이익을 존중하게 되면 개개인의 민족 전체의 이익과 행복이 추구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와 기쁨의 연마에서 가장 핵심이 자기가 되는 것은 개개인 및 개개인들이 가지는 '자아 의식'의 성격이라고 하고 있다. 긍정적인 자아의식은 남과 자기에게 존중과 관용을 보이는 기본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남의 이익도 기꺼이 인정하여주는 기본이라 한다. 자식 이것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다. 즉 자기 일에 전념하고 그 것을 완전히 이행하며 성공할 때는 주위의 모든 것이 밝게 보여지나 자기의 일에 불취하고 그 것이 안될 때에는 마치 주위의 것이 자기를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예가 비군하다.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여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는 수전노가 되는 극단의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자아의식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의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만큼 남의 이익과 발전도 그만큼 중시할 수 있다는 것이겠다.

우리 한국인 개개인이 선천적인 남다른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것과 우리 선조가 남겨놓은 우리 문화에 개인 전통과 문화의 융산이 남달리 값이 높은 것은 오늘날 한국인의 개인으로나 혹은 민족으로 다른 민족과 그 개인을 접촉하여 공동의 생활을 하는데 하늘이 준 큰 보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8.15를 접촉하는 8월의 우익에 대한 새로운 긍정과 우리 전통과 문화에 대한 존경을 새로이 하는 것은 더 넓은 세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오한 의의가 있다고 여기고 그 것을 완기하는 의의를 찾는 기쁨이 동시에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나의 회장직 회고록

한 만 성

내가 한인회와 첫관련을 맺었던 것은 1968년 여름 제 1회 한인회 피크닉 때 부러 시작되었다. 그 후 여러 선배 고포님들의 권유로 재무직도 맡고 부회장직도 맡아서 한인회와는 인연이 가까와졌다.

1972년 말에 이회기 회장의 권유에 따라 마지막 1973년도 회장직에 출마하기로 동의했다. 12월 송회 때후로 결과가 나오 하어금 회장관후를 쓰라는 언약이어서 하는 수 없이 큰 중책이라해도 고포의 숫자가 1000명 미만이었어서 별로 어려운 일은 없으리라 믿었다. 세로 선출된 회장의 임무는 아리랑의 밤 파티를 주관하는 일이었다. 회장임기 (1월 1일)가 시작하기도 전에 아리랑의 밤 파티를 준비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도 되어 있었다. 1971년 초까지는 이 파티는 씨아를 북쪽에 있는 한 제양군인회관에서 가졌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 장소가 조락하다고 여겨져서 72년도 파티 장소를 씨아를 섀터 근방에 있는 Norway Center (지금의 Nordic Center)의 근사한 홀로 정했다. 홀 장식은 여러 임원들의 아이디어로 굉장히 꾸며놓았고, 음악 밴드는 해마다 오는 Anderson Band 를 불렀다. 당시는 하루 밤에 200불을 주면 이 4인조 밴드는 새벽 1시까지 연주해주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양용아만 하는 것이었다. 그 날 저녁 아리랑 파티는 예전대로 관 친해되어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놓고 있는데 밤 10시 쯤에 난데없이 시경 순경 2명이 들어와 파티 책임자를 잡고 있었다. 내가 나가보니 우리가 여섯은 주의 주류법 위반이라고 했다. 예년에 따라 다량의 양주와 주류 만산 허가를 사서 카세일은 표 받고 주었다. 표는 돈을 받고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주류법에 위반하여 우리가 술을 파리장에서 파는다는 위반행위로 간주 된다고 했다. 순경이 나에게 딱지를 제시하면서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나는 이 난처한 임장에, 또 회장 임기도 되기전에 이를 어쩌나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계시던 전계상 전 회장직이 내가 싸인하지 하면서 서명을 했다. 며 주 지나서 내가 회장직을 받고 있을 때 전계상 박사에게도 법원 출두 영장이 나왔다. 법정영에는 이상희, 전계상, 이현기씨등 전회장이 몰두하여 재판할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이회기 전회장이 씨아를 시위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중국계 시 위험인 립후이를 잡아는 처지에서 립후이를 찾아가서 제차 우리 한인회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리랑의 밤은 Community Activity 였지 통장사가 아니었음은 여신했다. 립후이는 우리 한인회에 매우 동정적이었고 한인회의 입장을 편입하였다. 시경사는 우리의 사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소를 기과 검사에게 우리 한인회의 입장을 편입하였다. 시경사는 우리의 사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소를 기과 했다. 재판장에 갔던 한인회 참관인들은 모두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회기 선생의 조력으로 전계상 박사에게 죄명이 남지 않게 된 것이 나로서는 더없는 기쁨이었고, 지금도 그 분들에게 비친 감이 든다. 이렇게 나의 한인 회장의 임무는 아슬해던 주류 사건부러 시작되었다.

이 사건이 가락없는 다음 내가 중무 사임으로 착수한 것은 한인회 회칙 개정문 제였다. 한인회 조장기의 회칙은 오야만 나열한 두 페이지 정도 되는 조그마한 문서였다. 회칙을 보강할 필요도 없었기 회장이 힘써서 엮으신 후에 등록한 한인회 비영리 단체의 영문 저관과도 일치되도록 할 겸해서 회칙 개정 위원회를 구성했다. 김현길, 김덕환, 송용택 선생 나와 모두 내일이 회칙 개정이 되었었다. 김현길 박사가 먼저 회칙의 골자를 초안했다. 약 2개월에 걸쳐 여러차례 모여서 고치고 또 고쳐서 오종남 우리 한인회 회장의 모체를 만들어 놓았다. 또의중 체인 논란된 것은 이사회 중심제도 하느냐 혹은 회장단 중심제도 하느냐가 가장 문제점이 되었다. 김덕환 박사는 이사회 중심제를 지지했고 나는 회장단 중심제로 기울어졌다. 결국 권유안을 채택하여 「이사회-회장단」 복합 중심제로 남작되었다. 현재 우리 회칙에 적혀있는 " 본회의 기본 운영권은 이사회와 임원회에 둔다. " 라는 문구는 바로 상거

정송안에서 유래된 것이다. 입원회와 이사회가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위원회라는 것을 설정했다. 이 공동위원회는 지금도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회칙에 못 박아 놓은 것이다. 구 회칙에는 선거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2월 회장 선출때 마다 눈 에를 먹었다. 예를들면 임원들이 모여 금년에는 누구에게 회장을 부탁하나 의논하였고 종이 한장에 10여명의 회장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 여러 회원들에게 투표지를 우송했었고 확실히오는 투표 결과로 회장을 뽑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점은 어떤분은 자기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분도 있었고 그런분 일수록 좀 회장은 안해 주었으면 잡음이 적겠다 는 생각들이었다. 이때서 회장선거는 공평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회칙에는 회장, 이사의 선거에 관한 절차를 확실히 해두었다. 첫째 총회와 회장 선거는 11월 제 셋째 토요일로 못을 박았다. 미국의 총선거, 대통령 선거가 11월 둘째 화요일로 되어 있는 관습을 본받아 총선거 다음 주인 토요일로 정했다. 선거 50일전에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40일전에 입후보 모집 공고, 15일 전에 입후보자들 공고 하기로 회칙을 정했다. 이때 정한 회칙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셋째로 중요사항을 회칙에 넣은 것은 회비를 내는 분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도록 한 점이다. 이것은 김현길 박사의 제안이었는데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계 인사이면 누구나 다 선거에 참석할수 있게 되었다. 특히 회장 입후보 한 사람은 2년간 계속 회비를 내본 만이 등록할수 있게 하였다. 이는 단 곳에서 배락같이 와서 회장 출마하는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상 세가지 골자와 기타 부수 조항을 모두 모아 개정회칙 초안을 근사하게 만들었다. 이 초안의 정서는 김명원 선생이 한 것으로 기억한다.

8.15 피크닉 때 초안 한권씩을 각 고포들에게 나누어 주어 고포들의 제언을 듣기도 했다. 9월 15일에 회칙 개정안을 위한 임시 총회를 소집했는데 당시 역임한 대학 교수로 계시던 서두수 박사님이 쓰시던 교실에서 회의를 했다. 박암, 이창희, 서두수, 전계상 제 선배님들과 도합 10여명이 참석했다. 약간의 논의가 있었으나 대략 초안대로 세 회칙을 채택하였다. 이 회칙이 통과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그 중 한 가지는 임원회의 권한을 약화 시킨 점이다.

내가 한인 회장임기를 맡는 동안 김성길 총무는 회보를 내는데 수고했고 그 부인께서는 회보 원고를 동사용 기쁨 원지에 쓸필모 꼬박 꼬박 잘 써 주었고 우리집 지하실에서 동사기를 돌려 회보를 만들었다. 주소와 우표는 우리집 꼬마들이 잘들 날였다. 네 임기중 한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민 국가의 관계였다. 당시 이민오는 길은 매우 좁았는데 이곳 어느 한 목사가 종교 관계 회합을 명목으로 이민을 알선했다. 그 목사의 혜택으로 이민은 사람도 있었지만 경비도 좀 들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나 한인회장이 이 이민 알선을 방해한다는 소문이 돌러왔고 내가 이민국에 찾아가서 당국자에게 이야기했더니 하는 허무니없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후에 이 허무니없는 이야기는 모두 해명되고 말았지만 그때는 좀 안타까웠다. 나는 어디까지나 우리 고포끼리 월등어서는 안되겠다는 신조였고 그것은 한인회 운영방침으로 했다.

당시 한인회 재정은 매우 간소했다. 오존길 제부가 일년간 살림을 잘해서 수입 지출이 모두 \$960로 결산을 마쳤다. 안병영 섭외는 영본 편지를 잘 써 주어서 외교적으로 매우 힘이 되었다.

1974년도 새 회장은 새회칙에 따라 선출했고 구범희 선생이 회장이 되었다. 구회장은 그해 아미강의 밤을 Bellevue 에 있는 Holiday Inn에서 성대히 마네했는데 카레일은 호텔서 제공한 바를 이용하여 술은 직접 사먹게 하였으며 그때부터 한인회에서는 "술장사"와는 손 떼기도 했다.

참정권과 수혜권

김현길 박사
(미국 연방정부 주책, 도시계획성 근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정부는 선거가 중대한 국가적 행사이며, 모든 국민은 시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열심히 참여의식을 발휘한다. 그 중요한 이유는 수혜권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자고 하는 것이니 다시 말해서 경제적 이익을 강력히 추구하고 하는 것이다. 즉 투표권으로 시민의 권리주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니 자유주의적 정치 체제에서만 허용이되는 특권인 것이다.

한인 고포들이 여기에 정착한 지도 거의 반세기에 달하지만 참정권의 의식이 약하다. 우리는 정치적 권력 기반을 다-남에게 양보하고라도 노력의 대가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태도가 보편화되었다. 민주 민생. 민권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고 정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부여된 혜택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참정권은 우리의 헌법적 의무인 동시에 권리인 것이고, 잘 살고 싶은 사람은 다 쟁취하여야 한다.

미국은 80여개의 소수 민족과 인종으로 복합사회를 구성하며, 한 정부 정책에 의하여 서로가 이권을 다투는 것이 삼권 분립의 근본이념인 것이다. 이번 총선거와 예비선거에 한인고포가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는 곧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사회 복지 정책도 유권자의 등록 통계에 의해서 좌우되고, 피선거권은 행사할 때도 각 정당에서는 인구 분포도에 기준을 두는 것이 많다. 한인 고포들은 이런점에서 손해가 많은데 그 한 예로서 1980년도의 미국 인구 조사에 한국인의 숫자가 예상보다는 적게 보고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만을 마면하였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즉 하코마에 한인 고포가 616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린우드에도 84명 보다는 몇 배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운트레이크. 레락스에도 70명 보다는 더 되는줄로 알고 있다. 이러한 참여의식 부족으로 고포사회에 대한 정부 혜택은 합법적으로 줄어든 것이며, 후생사업이나 의료사업, 교육 보조비, 저소득 주택 할당도 최소한으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출선 수범하는 참여의식이 필요하며, 참정권 행사는 "나"를 위한 합법적 성토대회인 것이다.

수혜권은 참정권 행사 뒤에 받을 수 있는 "보너스" 상으로 정부가 베풀어 주는 여러 종류의 복지 사업을 정당하게 누리는 것이다. 노력후에 받는 상인 것이다. 헌법에서나 국회에서 논란하는 것은 항상 최대한의 행복을 최대한의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부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변호사가 된 은영일씨가 주 대법원 판사직에 입후보(6년 임기)하였는데, 한인 고포사회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득표수에 따라서 정치인이나 관공서의 정책 결정자들이 한인고포장태를 저울질 할 것이며, 다음에 출마할 후보들이나 후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되는 것이다. 득표수가 많을 수록 좋은 것이며, 승리하면 더 좋은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 정치는 게임 전략이 필요하며, 사람 사는 곳에 정치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곧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자기 만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데 날카롭다.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로서 우리는 의욕이나 배척심을 버리고, 민족 주체성을 확보하여 자립정신과 확고한 자신감, 그리고 주인의식을 발휘할 때 다른 인종이나 종족들도 우리들의 발전의식과 단합된 힘을 인정, 존경할 수 있다. 창조적 인간과 같이 우리는 진취성있는 태도와 개방적 사고 방식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같이 공익정신의 함양과, 상부상조하는 미덕, 그리고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드높여야 한다. 국가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위하여는 최소한의 참여의식을 발휘하여서라도 "내 안표"가 소중한 결정권을 가졌다고 믿어야 한다.

비 오는 날 밤에

박찬주

사념을 펼쳐버리고 조용한 사색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시각위에 서서 오늘도 힘든 현실의 판판을 딛고 다니보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버스에 흔들리며 물방울과 수증기로 부헤진 유리창 너머로 회색의
회색의 거리를 바라봄이 좋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구별되지 않도록 운층 회색으로 갖다아있는
수평선을 바라봄이 좋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꽃을 사 들고 싶어집니다.
한 뭉치의 장미와 안개꽃을 사는 사치를 부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값진, 네마음의 위안이 될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긴 머리카락의 여인이 물기를 머금은 표정으로
헤인코트를 걸치고 어느만큼 피로와 아늑함을 품기며 걷는
신부님을 떠올리게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비관과 향기가 모두 좋은 과일을 사고 싶습니다.
복, 레몬, 램프—
그 향기에 감사이고 싶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음악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케른를 드려우고 진혼곡을 들어도 좋고 담담하고 투명한
Brogue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물줄기에 젖듯 그 소리에 젖고 싶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한 영혼을 찾아 글로써 보내고 싶습니다.
한 귀리의 시를 읽고 물어 보기도 좋고, 침묵하고 싶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이 기막히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이 노예는 지난날 우리가 어렸을때에
부르던 노래이다. 어느 나라이고 자기나라 꽃이 있게
마련인데 웅남 웅남민이나 이민자들에게는 자기나라
꽃을 기억하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는 떠나나게 화려하지도 않고
또한 향기도 거의 없는것이 특징이라 다만 여름 내내
피면서 지고 다듬한 지역에서는 많은 잔편들이 모여
들어 활짝핀 꽃의 모양을 일그러뜨릴 때가 많다.
이 꽃을 두고 어느 시인은 무궁화 꽃은 우리 국민성을
장나라내고 있다고 말했다. 긴 날을 피면서 지는것
은 우리 국민의 인내력을 말함이고, 작은 편편들은
오랜역사 속에 수 많은 외침(外侵)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서 더욱더 국화(國花)로서 받들어 기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훌륭한 우리나라 꽃을 우연한 기회에 미국 땅에
서 볼 수 있었음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메인주 근교를 배경하여 생김으로 접어들다 보니 어느
조막한 주택 울타리 안에 무궁화 꽃이 피어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신기한 마음으로 잠시 가던 길을 멈출
수 밖에 없었다. 어떻게 저 나무가 여기까지 또한
누구에 의해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나
하는 의문점이다. 쉽게 씨앗으로 번식시킬 수 있다
면야! 또한 향이 없다는가 특별히 화려하다면 다소
상함이 많지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과해
보아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의문 속에 그 집
으로 떠돌아 온 것은 오후 7시가 넘어서였다. 저녁
노을이 곱게 물들어 있는 그 집에는 거의 60이 훨씬
넘어보이는 미국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나를 보며
니 매우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나
고 내게 물었다. 나는 저 꽃이 우리나라 꽃인데
어떻게 사서 심었는가 하고 물어 보았더니 자기들 부
부는 2년 전에 이집으로 이사했으며 그전부터 있었다
는 것이다. 다만 그 전에 미국인 남편과 동양인이
자카 함께 살았다는것이외에는 더 알지 못했다. 우

연이 이웃 사람이 함께 있어 함께 좀더 확실히 사귄
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한국 사람이었으며
남편은 근이이고 약 6년과 그집에 살았다는 것이다.
자기밖에 항상 애국기도걸어놓고 지냈으며 한국 이야
기를 많이해서 이웃 사람들은 한국을 많이 알고있으며
문자 줄거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
기는 그너로 부어 한국 국기가 인쇄된 서스 화장을
없이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걸드렸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무식인가 가슴에 은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떠한 광경을 가졌고 어떤 가문을
가졌는지 따질 필요도 없다. 한 개인에 불과한, 더나
아가 언약한 여인으로서는 말로만 애국하는 따듯한
그와, 그소독, 그외적에있는 자를 생각할 때 너
무나 기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사에서도 많은 영녀(英女)들은 볼 수 있었지
만 사치와 자기 불기예과 때문 요즘 세대를 생각할
때 매우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진정으로 맘
없이 조국을 사랑하던 여인은 어느도 출신인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모른다. 다만 미국인 남편과의 사이
에 두 자녀를 두었다는것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거
만은 확실히하다.

이제 그는 시에를 에 있다. 그러나 그가 싶어들은
무궁화는 두 노인에 의해 더욱더 사랑받고 있다. 남편
의 근무서를 따라 읽고 더 버지니아로 이사했다는 조국
의 땅에게서 처음으로 뜨거운 광경을 받았다. 그리고 많
은 그포들은 그 여인의 가정이 무궁화 꽃처럼 아름다움
국락하면서 향상될 수 있도록 행복을 빌 것이다.

주: 이 지역은 무궁화꽃 나무가 잘 자라는것 같습니다.
정원이 있으신고로 가정에는 무궁화를 꼭 심으시
기 바랍니다. 특히 땅의 영양이 좋아 꽃의 모양이
크고 우아해서 쉽게 생김중나지 않으며 아울러 무연의
에국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불 이창희 선생 기념 장학회에서

이창희선생 기념 장학회 이사회에서는 1984년도에도
장학생 6명을 모집하고 도합 \$2400의 장학금을 (\$500
장학금 세명 \$300 장학금 세명)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고 발표했다. 본 장학회는 그 이창희 선생님의 뜻을 기념하기
위하여 1979년에 설립된 후 고 민여러분의 헌금으로 유지되
고 있다고 한다.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학생들 가운데 전공 분야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움이 들에게 지급된다 한다. 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소정의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984년 11월 10일까지 본 장학회로 보내라고 하며
선발된 학생들은 1984년 11월 27일에 발표한다고 한다.
신청서를 원하는 본 들은 아래 주소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
라고 있다.

CHANG HEE LEE MEMORIAL FUND
2728 N.E. 100th St
Seattle Wa, 98125

이창희선생 기념 장학회 이사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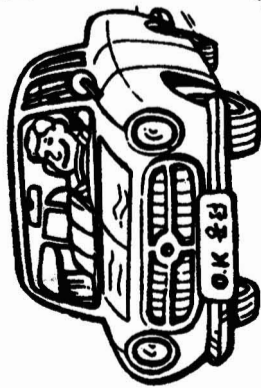
O.K. 운전 학교

- ※ 교표가 운영하고 교표가 지도하는 운전 학교
- ※ 운전 조보자에게 저렴한 교표비로 지도
- ※ 전문적인 지식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도
- ※ 최단 시일내에 운전면허증 취득
- ※ 필기 및 실기시험 100% 보장
- ※ 거리 및 지역에 제한없이 출장지도
- ※ 나이가 많은 분들도 쉽게 면허증 받음 수 있음

◎ 전화 문의 및 상담 환영

운전 학교: (206) 775-1588

집 : (206) 771-3680



장님 제 호박 따오기

워싱턴 한인루터교회 김동진목사

"이것봐 이런 호박을 다 따왔는데" 성성한 두 눈을 가진
사람 못지 않게 해서는 자기 행동이 뛰어나 덕견스어웠던
모양이다. 장님은 다은 동근 호박을 때만지며 이렇게
베기에는 모양이다. 그러나 눈은 사람들 볼 때 그것은
호박 이기는 했으나 자기 밭에서 따온 것이지, 남의 밭에서
따온 호박이따 자랑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장님은
그것이 호박 이라는 것 까지만 알고 있을 뿐 이것만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눈에는 오름을 한구 기독교가 비대해진나머지 속 보다는
같이 번저트하게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희열한 무명이
아. 왜망망한 옛 바리새인들의 재판이 오늘 우미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구세를 이른도 싶다. 교회만 본래 보이지 않
는 교회로부터 시각이 된것이지 보이는 교회로 부어 시각
된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주권이 전도되어
보이는 교회가 삼고회인양 건물과 시설 외주도 달리는
교회가 교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듯 그 족으로 서있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현재 지니고 있는 영매를 물결문명과
상용 문화권 속에서 교회가 비관없이 담음 안에서 기인한
것이타 생각한다. 그러나니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그 본래의 방향감각을 잃고 세 재도선을 잘못잡아 나가는
때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한국의 경우 기독교인의
수가 8백만 이라고 하여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자랑하고
있으나 이 소자는 주역 구구석의 짐작되는 숫자일 것이고
보면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음인이 되라" 하신
말씀 그대로 믿지않는 불신자들만을 상대로 전도했다면

활신 교회의 본본인 벨자 소금의 귀본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상업화니, 기업화니 하는 오명도 일지
않았을 것이타 생각한다. 이왕이면 신안 안 가정이라도 더
같이들어 교회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도와 한다는 아산이
사회에서 따돌림 당한구나 비말받은 자에게 돌며야 할 눈송
을 오히려 안으로만 돌며 상용의 주서를 따지듯 자기 로주
머니 속만 생 구제되어 자기 밭에서 따온것이든 아니든 그저
플직한 호박만 굴며 돌아와 자미만 재우고 있어도 겸사와
장모리는 말아 놓은것이 되고 보니 재고도 아닌 하나님의
가져고 신심 쓰는 교회가 되어버려, 언제부러 교회가 이렇게

인심이 무뎠던가 싶다. 미서 자기 밭에서 따온 호박인
줄은 아랑곳없이 막을시 좋은 말아버려져 손자 손녀에게
따구 이것저것 팔어주듯 교회가 장모리를 전시용의 도마
위에 올려 놓아 용성하는 사이에 장모리가 회생과 봉사적
인들은 전이모르고 일반 다른 사회의 경우로만 알았던 본들
가운데 하나의 명예의 구실로 전락시켜 신문 광고난에서는
모 장모 취익성 광고만이 요만스롭게 장식된다. 특히 이것
은 미국내의 한인 교회에서 더 심한것 같다. 목사와 제
들의 가족을 해놓으면 일반 평신도 수가 많이 아닐 정도인
교회기 무저기수 이경만 그런 교회 일수 특 관사, 장모
장모성 만은 매년 광고회기 있을 때 다우어 얻을 을미고 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는
일 일까?

자기 밭의 것인제 남의 밭의 것인제 따오지 마라 라고 하고 따
들인 호박을 남의 밭에서 따 온양 으시대기까지 하는 것은
물이나 목지가 떨어지기도 전해 뵈어 다 익은 양 교회에서
는 장모 취익하기예 마르지만 본안은 오히려 이것을 꺼여한
나머지 교회들 떠나 교회와 답을 살고 살아가는 겸손한
본들도 있음은 다행한일이타 하겠다. 자기는 눈을 멀다하여
장님이 아니라 하나 부업이 가 나눈 이 이름들이 그런 눈송
지냈다면 그 눈은 눈 뜨나나나안 눈이 아닐까 싶다. 만일
만 한 하나라도 어느 교회가 자기것인줄은 모르고 남의 밭
에서 따온 호박인 줄로만 알고 자기 따오기 잡다하여 말만
하던 부용이네, 어쩌네 하면서 자의 한다면 제발 제 모방만
은 제 자미에 갖다 놓아 할 호박일 것이다. 눈을 멀으나
보지 못하면 장님이다. 눈은 장님 소의 들을 바예야

자미미 눈감고 전까 장님 되는 게 남겠다 싶다. 그러기에
신앙남용시에 내가 차마미 장님이 되었다면 오히려 그런
법칙을 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고 하신 뜻이 여기있다
하겠다. 두 눈을 가진자는 많다. 그러나 볼 것 보고 살아갈
때에만 그 눈이 제 구실을 다하게 된다. 눈은 장님이 되어
제 모방 따오고도 남의 호박 따온양 큰소리 치는 어리석은
장님이 있는안 제 2의 종고 개행은 있어야 하겠다. 아니
지름 이미 오고 있다 하겠다. "필요"가 팔영의 어머니가
되듯이 필요하다면 제 2, 제 3의 개행은 오고야 말것 이며
도용당 앞야 터미마 믿는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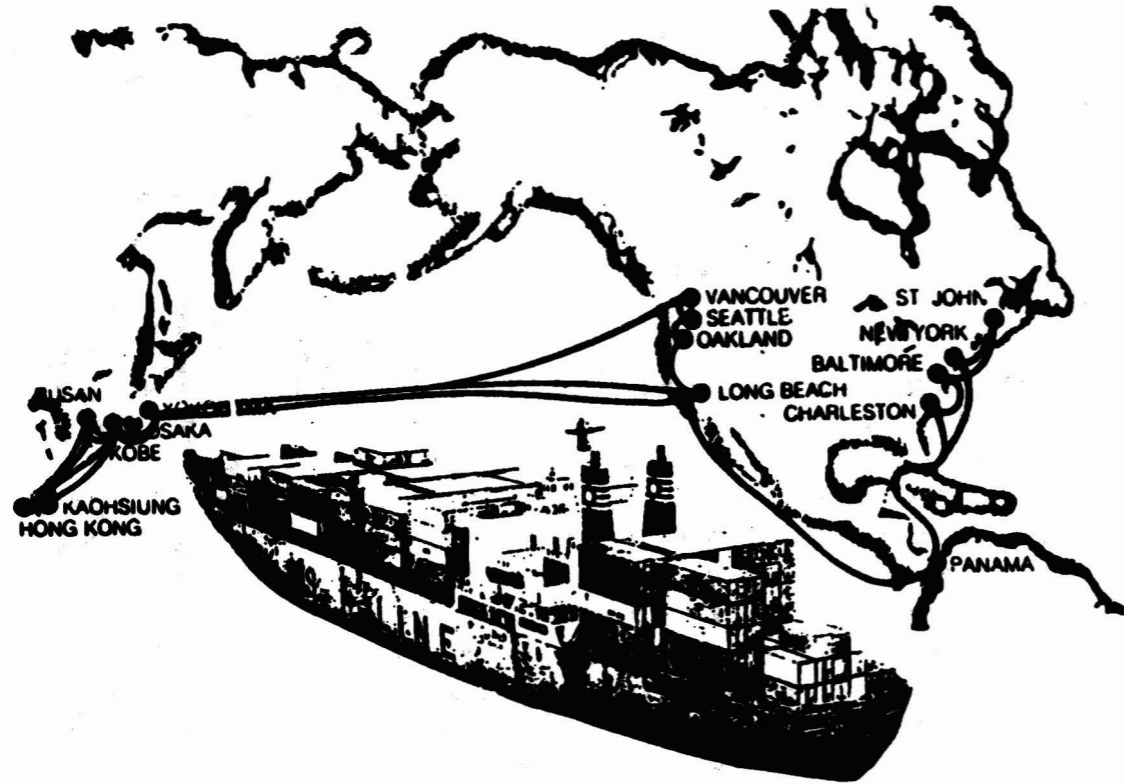
한국 해운의 기수

K.S. LINE

- 수출입 화물
- 귀국 이삿짐
- 창고업
- 통관업무

미국과 동남아를 6일 간격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귀택의 이삿짐은 부산·서울 편리한 곳에서 14일만에 통관, 찾으실수 있습니다.



(206) 625-1960

2121 Fourth Avenue Suite 2250 Seattle WA 98121



大韓船洲(株)
KOREA SHIPPING CORPORATION

홍비치 지점 (213) 437-8431
뉴욕 지점 (212) 422-8850
샌프란시스코지점 (415) 777-2880
시카고 지점 (312) 893-7500
휴스턴 지점 (713) 227-3261

밴쿠버사무소 (604) 688-2438
포틀랜드사무소 (503) 228-8818
볼티모어지점 (301) 727-3550
합스톤지점 (704) 365-4582

K. P. 번역원

K.P. TRANSLATION SERVICES



언어의 장애로 이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상담해 드리고 해결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사건조사, 법률처리 알선
- *유능한 변호사 알선
- *법정·이민국·정부기관·병원 통역
- *계약서·보고서·각종 신청서류·책자 고급번역 및 작성
- *ESCROW 서비스
- *이민문제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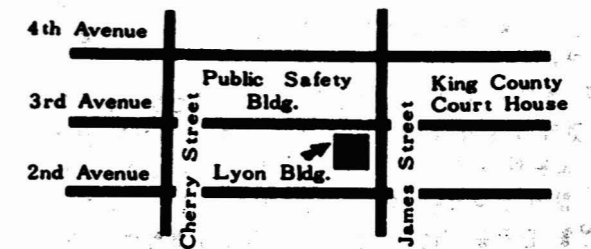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하여 K. P. 번역원은 씨애틀 다운타운 중심가에 새 사무실을 설치하고 풀타임 프로페셔널 봉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K. P. Translation Services

K. P. 번역원

Suite 303 Lyon Building
607 Third Avenue
Seattle, Washington 98104
(206) 682-3480

약도



* 3rd Ave.와 James St. 교차로 서북코너에 있는 Lyon Bldg. (씨애틀 시 법정 맞은편 건물) #303호실

소식 및 동정

MUSCANTO 장 학생 선발 요령

광복절 기념식 임수

8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어 한인회관에서 고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행사가 임수되었다. 오계회 한인회장 및 안세훈 총임사, 김동조 노인회장 손으로 경축사가 있는 다음 김병섭 평통위원장 선장으로 힘찬 만세 3장을 부른 후 기념식이 끝났으며 곧 다과회에 들어갔다.

재미한인 장학생 선발 결과

84년도 재미 한인 장학기금 장학생 중앙 심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야매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음

성명: 권영우 (Mr. Young Woo Kwon)
1964년 7월 29일생
주소: 3278 S.W. Beaverton Hillsdale Hwy #33
Portland, Oregon 97201
(503)-246 2860
재학: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14853

한 빛 문화 협회 발기

시애틀에 오매 거주하면서 한국 예술협회도 창립하시고 또 다국도로 고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예스시엔 박암 선생님께서 금번 모스안글스에서 "한 빛 문화 협회"를 창립하셨으며 "한 빛"을 발간하게 되어 시애틀 한인회에 1부를 유증하여 왔다.

한 빛 문화 협회는 조상이 남겨놓은 우수한 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오늘날 후세인의 번영에 기본이 된다고 견제하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전통을 경이, 이해하여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어머사람들에게 어서시켜 우리 스스로 이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제 3회 5개 도시 대항 축구 대회

제3회 노오스 웨스트 5개 도시 (시애틀, 하코마, 포틀랜드, 밴쿠버 (W.A.), 캐나다 밴쿠버(불참)) 대항 축구대회가 지난 8월 18일 하코마 오크우드 국민학교 교정에서 있었다. 시애틀 청소년팀은 1,2회를 연승한 전적이 있어 이번 3회 대회만 우승하면 우승기를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아깝게도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다. 전반에는 우세한 공격으로 하코마를 리드하고 있었으나 후반에 들어서 3대2로 역전을 당해 본패했다. 이날 오계회 한인회장 등 다수의 고민들이 응원을 보냈으며 선수들을 격려해 주었다. 청소년팀을 헌신적으로 코치하여온 신복산씨는 애석함을 금치 못해 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연습을 강화하여 좋은 선수단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으며 고민들의 더 많은 성원을 아뢰었다.

신호응씨 선수 유니폼 기증

시애틀 한인회 제고회 신호응 장로님이 청소년들의 체육진흥과 축구팀의 발전을 위하여 선수 유니폼을 기증하였으며 이번 대회에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사기는 고조되었고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보낸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 청소년 축구팀은 시애틀 지역의 유일한 청소년 축구팀이며 지난 수년 동안 시애틀을 대표하여 인근 도시와 대항하여 언제나 우승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이 선수단을 이같은 수준으로 지도하여온 신복산씨는 신호응 씨에게 특별한 감사표 현하였으며 선수단의 사기 앙양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1984학년도 MUSCANTO 한국학생 장학생 선발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자격 학생: 워싱턴 주에 거주하며 워싱턴 주 내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한국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 (유학생은 제외)

장학금 지불 내용: 4명 학생에 각각 2,000불 씩

신청 마감일: 1984년 10월 31일 (수요일) 오후 4시
(10월 31일 오후 4시 이전에 한인회 사무실에 도착한 것만을 인정)

신청 서류: 1. 현 학년도까지의 누계 성적표
2. 2통 이상의 추천서

선발 기준: 1. 우수한 성적으로 장래의 유망성
2.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점

선발자 발표: 1984년 11월 15일

신청서류 얻는 방법: 한인회에 연락하시면 우편으로 보내어 줌
전화 362-4500 (주중 2시 -6시 사이)

주소 2611 N.E. 125st
Seattle Wa 98125

문의점이 계신 분은 위의 전화나 주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USCANTO 한국학생 장학생 선발위원회

미국 생활에서의 법적문제 이해에 관한

세 미 나

한인회에서는 한인회를 위하여 오랫동안 수고하여온 크린튼 (Gordon S. Clinton) 변호사와 공동 주최로 한국 고민들이 알아서야 할 법적문제에 관한 일련의 "금요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갖이고자 하오니 필요한 고민들은 참석하시어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 소 : 한인회 회의실

2611 N.E. 125th St.
Seattle, WA. 98125

시 간	계 목	연 사
9월 14일(금) 오후 7:30분	영주권 소지자 및 H-1, L-1, F-1 및 기라 비자 소지자등 이민관계 문제	골든 크린튼
9월 21일(금) 오후 7:30분	주택 및 사업체 구입, 매매에 따른 문제점	어빈 데스메르
9월 28일(금) 오후 7:30분	여러가지 사업체의 종류와 운영에 관한 문제	키쓰 린슨

시 에 를 위 상 은 한 인 회
Gordon S. Clinton 변호사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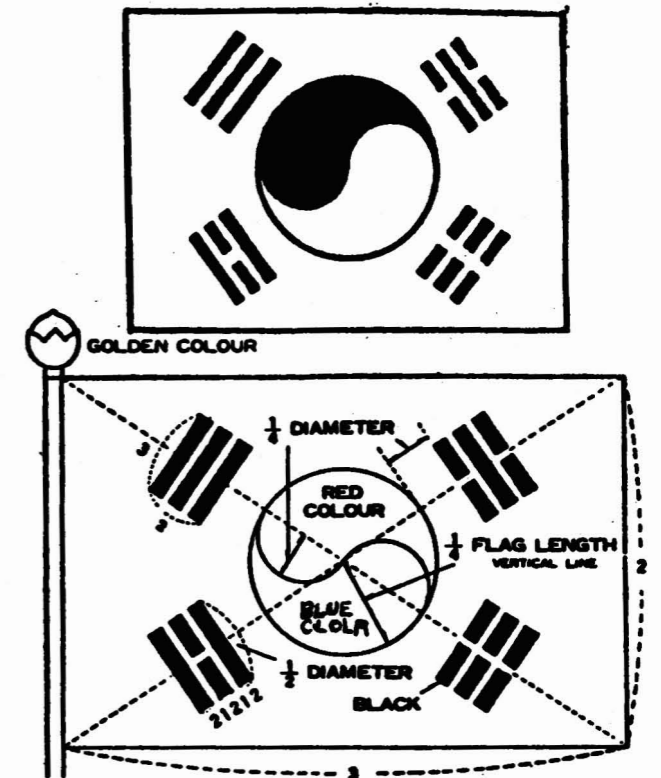
국 기 태극기 해설

한국의 국기는 동양의 사상과 철학, 신비주의를 상징하고 있다. 그 상징을 태극이라 하며 그것이 국기의 이름이다.

국기 위의 균등하게 나뉘어서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고 그려진 원의 위쪽 붉은색은 양(陽)을 나타내고, 아래쪽 푸른색은 음(陰)을 나타낸다. 이 음과양은 우주를 나타내는 상징이며 이 두개의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우주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즉 물과 불, 밤과 낮, 어두움과 밝음, 전설과 파괴, 남성과 여성, 농동과 수동, 뜨거움과 차가움 등등.

태극기의 중심되는 사상은 무한한 이 우주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변화속에서도 항상 균형과 조화가 있다는 것이다. 예로서 은유함과 강인함을 생각해보자. 부모가 자식에게 은유하게 대한다면 충진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약하고 나쁘게 만들어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피고 그들을 은유하게 키우는 부모일때 제도 불경하게 된다.

국기 네모퉁이의 세계의 막대기 역시 반대와 조화의 사상을 나타낸다. 세계의 나뉘어져 않은 막대는 하늘(天)을, 세계의 나뉘어 막대는 땅(地)을, 왼쪽 아래의 하나의 나뉘어 막대와 두개의 나뉘어지지 않은 막대는 불(火)을, 두개의 나뉘어 막대와 하나의 나뉘어지지 않은 막대는 물(水)을 뜻한다.



로명재 산부인과 美 산부인과 학회 인정 전문의

- 임신·분만
- 피임상담
- 복강경 피임수술 전문 (13년의 경험)
- 각종 부인병수술
- 일반 부인병진료
- 불임조사 및 불임증 치료
- 질 성형수술
- Sexual counseling

Auburn office

833-2580

Federal way office

927-8440

직장상해보험의 보상제도는?

"가끔 우리는 상해보상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의하면 모든 고용주들은 고용인이 그 고용주 밑에서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을 대비해서 직장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어떠한 고용주 혹은 고용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가령 보통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고로 인해 조금 다쳤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해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 병원비나 그로 인한 앞으로의 병원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임시로 얼마동안 직장을 못다니다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다시 육체적으로 원상태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보상을 해야한다. 이때에 만약, 고용인이 아주 영구적으로 일을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그 비율로 나누어서 보상해줘야 한다. 거기에 대한 혜택비율은 다친 사람이 일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 사람의 나이, 직업, 봉급, 그리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만년의 임금을 배상한다.

이 직장상해보상법은 다른 사고로 인한 보상법과는 다른 점이 많다. 가령 차사고라든지, 다른 사고 경우를 봐서 그렇다. 먼저 이 상해보상은 누구 잘못을 막론하고 다친 사람한테는 꼭 혜택을 줘야 한다. 그러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는 이 점이 다르다.

본래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사람은 어떠한 사고가 어떻게 났던가는 상관없이 일단 고용인이 그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으면 무조건 그 직장상해보상 혜택을받을 권한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고용주가 고용인들이 일하는 주위상태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방심한채 고용인을 그자리에 배치시켜서 고용인이 사고가 났을 경우 고용주에게 강압적으로 그외의 벌금을 물으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고용인은 만약에 제조공법의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제조공업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점은, 이 상해보상법은 보상금액을 직접 법정에서 판단하여 거기에 대한 금액의 비율을 정한다. 이 상해보상에는 기본적으로 필수조건이 있는데, 그 다친 사람

이 일할 수 없는 정도가 비교되고 결정되는 것은 건강상태에 달려있거나 특정한 직업인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들면 만약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손가락 하나를 직업으로 인하여 잃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100% 그 이유는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손가락 하나를 잃음으로써 다시는 바이올린을 칠수가 없음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전화받는 리셉니스트가 손가락 하나를 잃었을 경우엔 100%라 할 수 없고 그 사람은 일하는데 조금밖에 지장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전부 못하진 않을테니까 이를 100%일정 할 수는 없다.

차사고나 직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고일 경우는 거기에 대한 손해를 포함, 마지막으로 결정하여 그 보상을 하게된다. 가끔 금전적인 보상은 그 사람의 아픔, 괴로움, 사고나 사람의 의형적인 것에 기준하여 보상을 청구하는데 사실 이 비율은 직접적으로 상해보상 받는다는 관계가 되지 못한다. 만약 그 사람이 일할 능력이 있다면 위의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YOUTH COLUMN

A Utopia Where Life is Simple

Helen Haewon Lee



That sultry July morning, I walked alone on the narrow dirt path in the countryside which led to my grandfathers house. As I stopped to gaze around, I saw acres of plush green tree-filled mountains, fields of rice paddies, and tired, tiled-roof houses scattered leisurely amidst. I wondered how many times my father had walked this very path years before, enroute to an elementary school miles away, seeking refuge during a war-stricken period, and to return home at last, for the very first time, from America.

Outside was a busy world-modern and new, here it was isolated, never changing, never touched. The utopia of my innervision is this place, where life is simple, calm, and tranquil.

In the Choong Chong Nam Do providence of Korea, near the city of Seochun, my grandparents still live where my father and his forefathers were born and raised for generations far beyond memory. Today, in this vast strip of grassy land, stands the temples and tombstones of my great forefathers.

I sense some unexplainably special feeling when I am on the land of my ancestry, where the roots of my family are firmly implanted into the rich soil. I breath the fresh air and drink the water lifted from the old stone well, just as they did. Plateaus of greenland envelope me as I take in the breathtakingly beautiful scenery. As I awake from a roosters cackle and eat from the rice paddies from which my ancestors thrived, I know, deep in my heart, this is my true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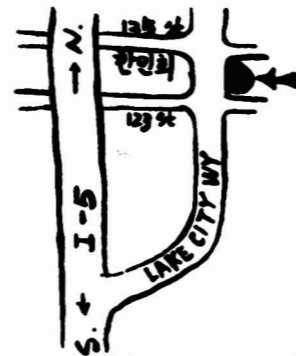
SUN TROPHY CO.

고동안 찾아주신 고객여러분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시고 찾아 주십시오.

취급품목 : 트로피, 상패, 기. 케년트, 실크인쇄, 범퍼스틱 (전도용)

주소 : 12336 Lake City Way NE
Seattle, WA 98125

전화 : 367-4432 (가게) 363-9547 (집)
Tacoma: 588-9222



명심보감(明心寶鑑)

배움으로 향하는 욕구(欲求)=勤學篇, (1)

인간에게는 알고자하는 욕망이 있다. 이 지식에대한 욕망은 인류문명이 향상으로 치닫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있지 않은가.

많이 배우고 뜻을 든든히하고 질문고 잘 생각하면 인(仁)은 그속에 있는것이다. (孔子)

子曰, 博學而篤志하고, 切問而近思면 仁在其中矣 니라.

해의(解義)

인(仁)을 행하는 기쁨이 이루어지는것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다. 널리배워 덕을 닦으려는 뜻을 든든히하고, 실제에 있어서 절실한 물음을하여, 자기에게서 가까이 있는 평상의 도리와, 그리고 그도리의 실행을 생각한다면 인(仁)을 실현하는 기쁨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것이다.

* 독일의 칸트는 "학문이 있은후에 선견(先見)이 있고 선견이 있는 연후에 역행(力行)이 있을수 있다"고 했다.

사람이 배우지 않음은 아무 제주없이 하늘에 오르려는것과 같고, 배워서 멀리알면 좋은구름을 헤치고 푸른하늘을 보는것 같으며, 높은산에 올라서 사방 바다를 바라보는것같다. ()

莊子曰, 人之不學은如登天而無術하고, 學而智遠이면 如披祥雲而翺青天하고, 登高山而望四海 니라.

해의(解義)

용(龍)이 아무런 조화(造化)의 제주도 없이 어떻게 하늘에 오를수 있겠는가. 사람이 배운다는것은 지혜의 하늘을 날기위한 날개를 갖추는 일이다. 배워서 지혜가 깊어 보라.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듯, 또는 높은산에 올라온 세상을 내려다보듯 온갖 사물들 그 이치가 활짝 열려 보이리라.

욕(至)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義)를 알지 못한다.

禮記에曰, 至不琢이면 不成器하고, 人不學이면 不知義 니라.

해의(解義)

욕이 하나의 그릇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듬어겨야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의(義)를 알아 사람구살을 하도록 되어지려면 배워서 인간의 도리를 알고 인간생활의 바른길을 알아야한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마치 캄캄한 밤길을 가는것과 같다. (太公)

太公이曰, 人生不學이면 如冥冥夜行 이니라.

해의(解義)

사람이 배워서 세상사물의 이치를 알지못하면 그것은 마치 캄캄한 밤길을 감과 같다. 캄캄한 밤길 —, 가령 그앞길에 깊은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있데도 그것을 보지못해 빠지게 될것이요, 설령 절승(絶勝)의경치가 둘러 있데도 그좋은을 완상(玩賞) 못하고 지나가게 되리라는말. (다음호에 계속)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KO'S 사진관 & VIDEO

최신장비와 기술로 여러분을 저렴한
가격으로 상심껏 모시겠습니다



<각종 기념할라 사진전문>

- ◎백일, 돌, 결혼, 회갑, 각종단체
- ◎여권 및 시민권을 사진
- ◎필름현상 및 인화
- ◎출장 촬영 촬영

<VIDEO PRODUCTIONS>

- ◎비디오 출장 촬영 촬영
- ◎16 m/m 및 8 m/m 영화촬영
- ◎비디오 테이프 편집 영상, 음향, 제작, 카피
- ◎한국영화,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대여

전화 (206)775-0896 대표 고 광 준

4812 225th Pl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독자 설문란

한인회보 편집부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해답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하여 "독자 설문란"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민중에서 의문나시는 것, 혹은 해답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계시면 그 질문을 쓰셔서 한인회 편집부로 보내어 주십시오. 전문가의 의견 및 해답을 보내어드림과 동시에 고민이 알아서 도움이 되는 사항은 회보의 "독자 설문란"을 통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EDITOR

SEATTLE WASHING KOREAN ASSOCIATION

2611 125th St N.E.

SEATTLE WA, 98125

홍인표 신경·정신과 전문의

901 BOREN AVE.
CABRINI TOWER #707
(206) 587-5747, 587-3748



꽃 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모든 애경사에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모인스꽃집 824-5920, 밤 243-5160

정문언보험 FARMERS INSURANCE
9525 AURORA AVE. N.
SEATTLE, WA 98103
(206) 523-9111 • (206) 588-0611

황수철 부동산

NORTHEND 및 BELLEVUE 지역

522 - 7566

자니전파사

비디오 TV 시계 카메라

전문수리

전화 241-5144

(현대식품 옆)

YAMAHA KAWAI STEINWAY SCHIMM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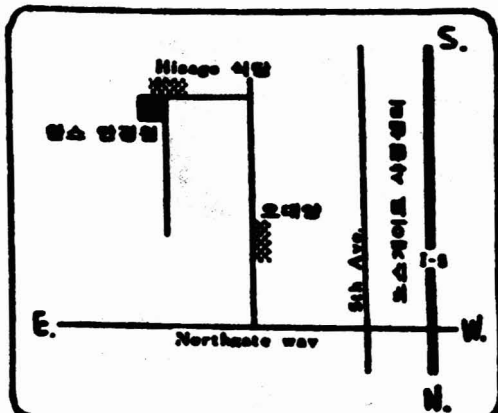
세계피아노사

365-5540

11325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25

한스 안경원

- 안과 처방에 의한 안경 및 콘택트 렌즈
 - Appointment에 의한 정확한 시력검사
 - Medicare 및 직장건강 보험의 vision care service
 - 품질을 보증하는 고급안경테 및 렌즈
- 543 NE Northgate Way Seattle, WA 98125
(B)363-5007, (H)362-8330



이종주 부동산



사무실 527-0555 집 789-3022

1. 다양한 사업체, 주택, 오피스, 아파트, 콘도미니움
2. 중소기업, LEASE, Rental Space
3. 사업개발, 용자, Tax, 후자상담 대환영
4. 그로서리:
 - 13만 9천, 3만 5천다운 월매상 4만 3천 (Gas 별도)
 - 16만 7천 (2층 건물) 5만 다운 (계고 포함)
 - 월매상 2만 2천
 - 29만 6천, 8만 다운, 월매상 6만 3천 (Gas 별도)

각종 영문 및 한글 인쇄

린우드인쇄소

(206) 775-7667

== AUG. SALE ==

Business Card \$12.95
Letter Head \$13.50
Envelope \$22.50
500 each

정성드려 인쇄합니다

DENTIST

치

PHONE 778-0707

과

RONALD D. CANTU' D.D.S.

치과의사 로날드 D. 켄투

6226 BUILDING SUITE 2-A
6226 196TH S.W.
LYNNWOOD, WASH. 98036

이 광고를 지참하시는 한인에게

15%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15% off

센츄리부동산
(206) 223-8949

400 BOREN AVE SEATTLE, WA.

SAM YUN : 878-3647 변종혜 : 775-6976

이양남 : 363-0443 수잔 김 : 883-4484

김일영 : 874-4451 조인 : 364-5966

GROCERY + 빌딩(SNOHOMISH) : 19만 + 재고 5만 다운

월매상 2만 이상

GROCERY : 1. 26만 + 재고 (6일 영업) 15만 다운

월매상 62,000

2. 35,000 + 재고 월매상 12,000-15,000

CASH DOWN

인세초 : 85,000 + 재고 35,000 다운

6일 영업 월매상 7,000

월손익 2,500-3,000

SHOE REPAIR : 7만+재고 3만 5천 다운 월매상 5,000-

BREAK & LUNCH (5일간) : (주인미국인)

1. 140,000 + 재고 45,000 다운

월매상 800불 (공장지역)

2. 145,000 + 재고 65,000다운

월매상 650-800불 (6:30-3:00 PM)

TAVERN : 14만+재고 35,000다운 월매상 약2만

3만 다운 현주인 8년

세약초 : 85,000 + 재고 4만 다운

월매상 5,500- 전망 좋음

OFFICE BUILDING +아파트 (AUBURN 지역):

49만 RENTAL 수입 월4,800-

7만 다운 CASH FLOW 있음

기타 주택 및 다수 LISTING 이 있습니다.

제일 음악 학원

- 세에를 최소로 개편, 신학년 10명 1개월 무료지도 (월 4회)!! 자녀 교육?
- 피아노, 기타, 악기, 실용음악지도.
- 신인카타-초보자 단기완성
- 생활감기, 복음성가, 교회 찬송가를 위한 특별지도
- 완벽한 지도와 유능한 교수진(한·미인)
- 수강지도, 교통 편의 가능성.

367-2273 (FON CAMP)
3102 NE 145 St, Seattle, WA 98155

김병관 부동산

□ 사업체 및 주택
알선해 드립니다.

□ 투자안내 및 상담환영

□ 성심껏 봉사 하겠습니다.

집 ☎ (206) 745-1367

사무실 (206) 365-4700

정확하고 친절한 여행안내
장여행사
C AND C TRAVEL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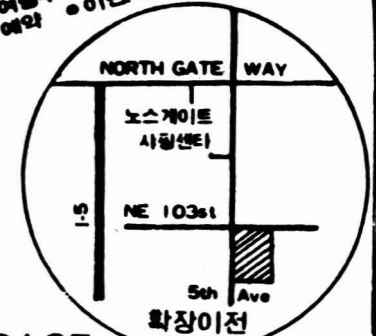


IATA, ATC, PATA 회원

- 국내외 항공편에 (일부도 가능)
-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 각종 여행수속
- 호텔, 렌트 카 예약
- 각종 항공권 판매
- 항공 보험
- 공중업무
- 이민 법률 안내

523-7057

* 24 시간 *



10212 5th Ave. NE #220 SEATTLE, WA 98125

하바 하바 비데오 및 사진관

비데오테이프 대여

각종 한국영화 · 연속극 · 시극 · 군예
및 다양한 프로그램

존경하는 교포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3년도에도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돌아오는 새해에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TEL: (206) 475-6226

● 출장 촬영 환영 ●

결혼 · 약혼 · 돌 · 회갑사건
영구권 · 여권 · 시민권사건
각종연회 및 파티사전예약
받습니다.

- * 결혼식
- * 장례식
- * 각종 축하 화환
- * 그린 프렌즈
- * 전화(525-7422)만 주시면 언제든지 배달해 드립니다.

University Village FLORIST

50년 전통의 Snohomish Bakery

- * 생일 * 결혼 * 회갑 * 축하케익 * 무료배달
- * 다과 * 도나트 * 단체주문배수

스노호미쉬 (206) 568-2020
에버렛 (206) 258-1444

Snohomish, WA. 98290



박화룡

각종 표구 액자 전문
 서예 수예 동양화 평풍계작판매
 각종고급 서양화 특별엄가판매

※ 초상화 진화문의환영

각판

한글 한문 영문 아크릴 프렌카드
 각종 특수체 및 조각간판제작
 사무실 762-5410
 집 242-6801
 월~토 오전 9시~오후 5시

1515 Roxbery S. W. Seattle WA 98106
 (중앙식품 근처)

한인회보 8월호

*** 편집후기 ***

* 편집 위원 및 한인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6.7월호를 합본으로 보내드린 점을 지면으로 사과드립니다.

* 그간 7권의 한인회보를 보내 드린바 있습니다. 고민들 여러분께서 보시고 미흡한 점이나 필요로 하신 새로운 내용이 있으시면 서슴치 마시고 지면으로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꼭 수집해서 홍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광고주 여러분들께서 광고에 대해 만족하신지 또는 수정해야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및 추가내용등을 정비해서 만족한 광고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규 영 계 리 사
 귀중한 재산을
 소중히 정리해드립니다.

※ 컴퓨터로 장부정리 ※ 퇴직 연금 상담
 ※ 일반 인컴 택스 ※ 세무상담
 ※ 중소기업 장부정리 ※ 공증업무
 ※ 기밀 절대보장

(206) 623-4181/3
 2809-4th Ave Seattle, WA 98121

◎ 순 한국식 중화요리

四川飯店

일류 요리사의 순 한국식 진미 요리로써
 성실 및 한인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 짜장면, 짬뽕, 군만두, 양장피자, 찜닭, 팔보채, 탕수육, 라조기, 해삼탕, 불고기 기타 각종요리

■ Lunch Special \$3.25
 ■ 김치 무료제공

영업시간
 화~목 11:30~10:30
 금~일 12:00~11:00
 ● 월요일은 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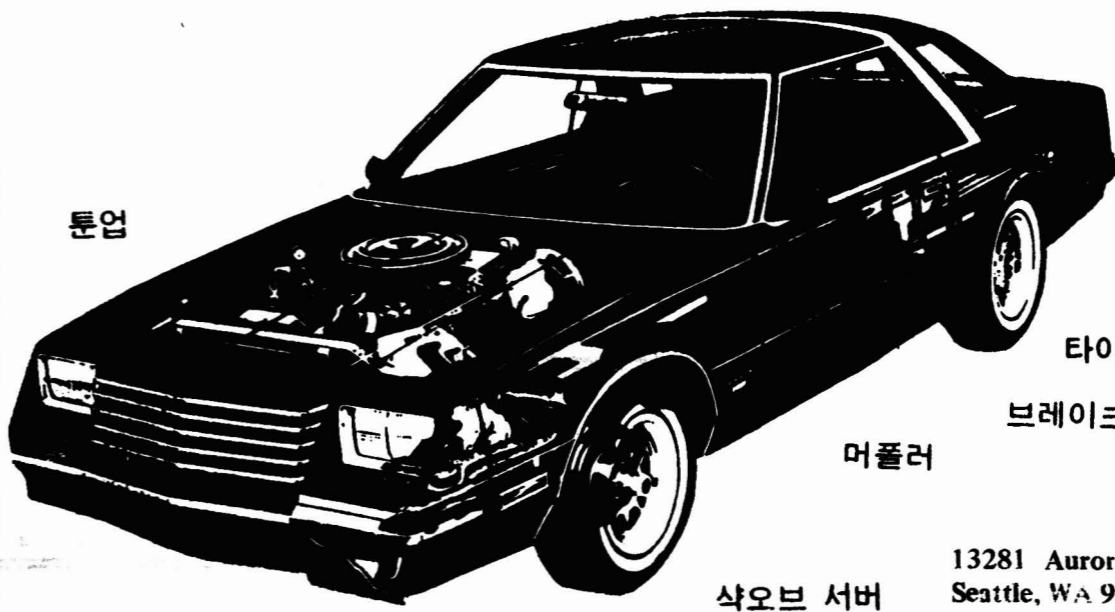
★ TO-GO도 합니다.

14814 15th Ave NE SEATTLE.
 전화 365-9174

한인회보 1984년 제 8 호
 발행인: 오 계 회
 편집인: 박 승 휘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2611-125th St. NE
 Seattle, WA 98125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206) 362-4500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LEE'S 타이어 및 자동차 종합 정비센터



타이어
 브레이크
 머플러
 삭오브 서버
 트랜스 및송
 프론트 엔드얼라인 먼트

13281 Aurora Ave. North
 Seattle, WA 98133
 Tel: 362-4449

모두 완벽하게 고칩니다

류 종합보험

All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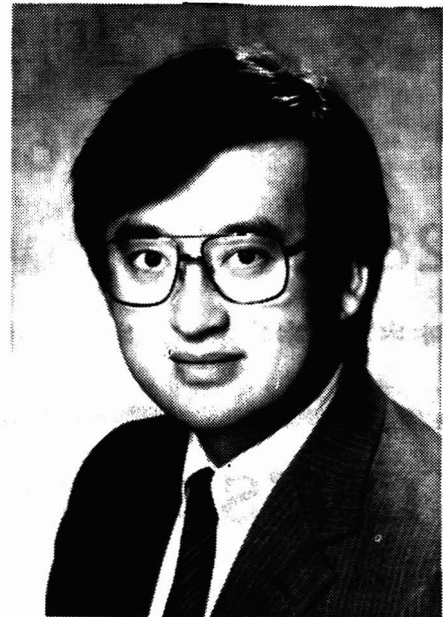


- 생명보험
- 교육보험
- 가옥보험
- 건강보험
- 차 보험
- 사업보험
- 용자알선

언제나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류 창 명 종합 보험

사무실 : 364-2450
자택 : 362-2510



157가 AURORA NORTH의 SEARS 빌딩 내.
믿고 찾을수 있는 SEARS의 ALLSTATE를 찾아주세요

리우드 TOPRIN 인쇄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o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To: HAHN, MAN-SOP 01146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